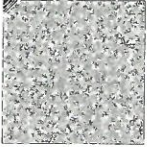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56호 2021년 9월 5일(나해)

연중 제23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119(118),137,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이사 35,4-7L

화답송 | 시편 146(145),6C-7,8-9,9L C-10,7L (© 1L)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야고 2,1-5

복음환호송 |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 마르 7,31-37

영성체송 | 시편 42(41),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

쥐를 껌껌한 상자에 가둬두면 3시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면 3일 이상을 버틴답니다. 한 줄기 작은 빛이 쥐에게 생존의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있으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불충으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주민들 대부분을 바빌론으로 끌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바빌론 유배 중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실의에 빠진 당신 백성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어줍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억압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육신의 병까지도 치유되어 눈먼 이들이 보고, 귀머핀은 이들이 듣고, 다리 저는 이들이 걷고, 말 못하는 이들이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하느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귀머핀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듣고 말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중풍 병자를 고쳐주시어 걷게 하시고(마르 2,1-12), 눈먼 이를 치유해 주시니까

르 10,46-52).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실현하심으로써 “목자 없는 양들”(마르 6,34)과 같은 백성에게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 묵시록이 아름답게 표현하였듯이, ‘하느님께서 사람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게 될 것입니다’(묵시 21,3-4 참조).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 끝 날에 완성됩니다. 초기 교회 신앙인들은 하느님 나라가 곧 오리라는 희망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한국의 순교자들도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온갖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이미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하느님 나라가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혼과 육신의 병고가 극복되기 시작하고, 그 은총에 응답한 이들을 통해 가난을 비롯한 부당한 차별(제2독서)이 극복되기 시작된다면, 교회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맛과 분위기가 풍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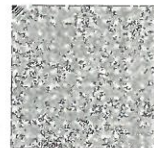
양평 무왕리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삭 마른 땅은 샘터가 되리라.”(이사 35,7)

탐스럽게 잘 영글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두 개의 해바라기를 맞대어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평만 보이지만 얼굴을 들면 앞이 보이고 어려움이나 곤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해오면 나도 작은 어깨를 선뜻 내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김선형 마르타 | 가톨릭사진가회



송희준 아델라 | 배우

작은 배를 띄우는 마음

어렸을 적부터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과 표현을 가졌던 저는, 저를 통해 어떠한 심상을 내어두는 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림을 전공하면서부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필름 사진에 찍히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델 일과 지금의 배우 일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만 그려오던 저에게 배우 일은 낯선 세상이었지만, 점점 연기하는 것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선물같이 주어진 일들에 흠뻑 빠지게 되었죠.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매 계절이 제 모습대로 흘러가듯이 저의 마음도 어느 굴곡과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큰 벽 앞에서 서서 문고리를 찾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또 때로는 책상 가장자리에 곧 떨어질 듯 위태롭게 자리한 물잔처럼. 어떠한 불안감이나 외로움은 가슴 깊은 곳에 섬처럼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초저녁의 푸른 땅거미가 질 무렵, 무심히 지나치던 길에 자리한 성당의 오렌지 빛깔의 초가 그날따라 유독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잠시 머물 생각으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성당에서 저는 결국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내 뭉치라 여겼던 나의 연약함,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여러 감정들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눈물이 그친 후, 마음은 한결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고요한 평안이었습니다. 부

은 눈으로 성당 문을 나서는데 마당에 계시던 수녀님과 마주했습니다. 수녀님께서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들꽃 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기도할게요.” 하시고는 등을 토닥여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저녁의 잔상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고 한참을 되새겨 봤습니다. 처음 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라는 한마디 위로의 메아리가 되어 밤새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무척대고 성당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녀님께 여쭙봤습니다.

“수녀님, 저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성당에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저는 삶에 대한 의문과 존재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터라, 절대자를 믿어야 하는 종교를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교만한 생각이었죠.

돌이켜 보면 하느님께서도 제게 와서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숨결을 드리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으로 초대되어 제 작은 배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지금,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박문정 다프로서
성바로말수도회

마태6:2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은
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제주교구 나오미센터

“

제주도 이주민 난민의 동반자, 나오미

”

“8, 10, 11, 13”

나래(24세, 가평)의 동생들 나이입니다. 예멘 전쟁을 피해 나오다가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 아빠와 함께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아빠는 어떤 일에 연루되어 출국한 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래는 나오미센터의 도움으로 월셋집에서 살면서 재봉 기술과 자수를 배워 틈틈이 손가방을 만들어 팔거나, 옷 만드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래의 막냇동생은 한국에 왔을 때 5살이었습니다.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아랍어보다 한국어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말해 나오미센터 직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래 가족은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민불인정을 받았고, 현재 예멘이 전쟁 중인 것을 고려하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매년 체류비자를 갱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언제든 전쟁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자라면서 한국어만 배운다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한국어만을 열심히 배웠지만, 이제는 떠날 날을 위해서 모국어도 잘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난민 신청자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매우 벅찬 일입니다.

이승협 신부(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장)가 운영하는 나오미센터는 제주도 유일의 가톨릭 이주사목 센터입니다. 구약 룯기



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주민, 난민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미사 및 성사, 상담, 한국어 교육, 병원 진료 동행 및 무료 클리닉 운영,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한국으로 이주해온 청소년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부모 손에 이끌려 한국에 왔고, 오자마자 부모는 일터로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 집니다. 아무 준비 없이 교실에 들어간 아이들은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오미 공부방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 및 심리 상담 치료까지 해주면서 아이들이 온전하게 적응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펴줍니다.

가족이 살 집을 구해 주고, 부모들의 직장을 소개해 주고, 아이들의 공부를 돌보는 일까지, 나오미센터의 업무는 폭이 넓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그곳에도 나오미센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주사목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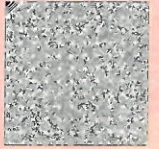
나래 가족처럼 난민불인정 상태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꽤 많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모아주신 후원금은 전액 나오미센터에 지원되어 노후 시설 개선, 이주난민 의료 및 보건 지원, 심리 상담 치료 활동 등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1년 9월 4일~10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제주교구 나오미센터'를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
특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 시험관 아기의 문제 -

자녀는 산물(product)이 아니라 선물(gift)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쌍둥이가 점점 더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관 아기가 점점 더 많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시험관 아기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뒤 수정된 배아를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해서 출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정된 여러 배아를 동시에 이식하기 때문에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난임으로 고통받는 많은 부부가 이 시험관 아기 시술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갖고 있으므로 시험관 아기 시술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술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문제와 자녀 출산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관점이 달라지고 가톨릭교회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부부 사랑의 결실로 새 생명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모상을 또 다른 사람으로 전하며, 그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봉사하는 소명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특히 부부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들의 “일치의 영원한 징표”를 봅니다(가정공동체 14항). 부부는 자녀를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며, 자녀가 선물로 주어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자녀는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

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그 자체로 소중하며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관 아기 시술은 부부 사랑의 고유한 표현인 부부 행위(성행위)와 자녀의 출산을 분리합니다. 이때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야 하는 소중한 인간 생명은 부모의 부부 행위와 상관없이 기술자의 손을 통해서 시험관에서 물건처럼 생산됩니다. 시험관 시술을 위해서는 여성의 몸에서 무리하게 많은 난자를 채취해야 하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험관에서 수정된 여러 배아를 동시에 자궁에 이식하여 한둘만 남겨두고 낙태를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되지 못한 많은 배아는 냉동 보관되다가 폐기되거나 실험에 사용됩니다. 이는 인간 생명을 파괴하고,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부부 행위의 의미도 왜곡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이 선물로 주시는 자녀를 기다리는 것은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자신들의 사랑과 인간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시험관 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프로 임신센터’(여의도 성모병원)를 통해 많은 난임 부부들의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주님을 찬양하여라(Laudate Dominum), 주님을 찬미하는 천상의 선율

모차르트 <증거자 축일 저녁기도 K.339> 중 '주님을 찬양하여라(Laudate Dominum)'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심의위원

서울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음악칼럼>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성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한국 최초의 신학생이자 두 번째 사제로, 1849년 사제품을 받은 이후 약 13년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신부님은 당시 박해의 눈을 피해 전국에 숨어 지내는 신자들을 찾아 밤낮없이 걷고 또 걸으며 사목활동을 하시다가 1861년 급기야 장티푸스와 과로로 선종하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소개하는 글을 보다가 익숙하지 않은 말 '증거자'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순교자', 박해를 받았으나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증거자'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양업 신부님은 '증거자'로 선종하신 것이고, 아직 시복되지 않으셨으나 시복 시성 후보자 반열에 올라계셔서 '가경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사상 가장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오스트리아)의 작품 중에 '증거자' 축일에 부르도록 작곡된 음악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1780년 고향인 잘츠부르크 대성당의 전례 음악으로 작곡한 <증거자 축일 저녁기도(Vesperae solennes de confessor) K.339>입니다. 여섯 곡의 짧은 곡들로 구성된 이 작품에서 단연 우릴 사로잡는 곡은 다섯 번째 곡인 <주님을 찬양하여라(Laudate dominum)>입니다.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라틴어로 시편 117편을 노래하고 나면 뒤이어 합창이 영광송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노래의 끝에 다시 소프

라노가 아름답게 '아멘'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음악을 듣노라면, '영광송' 그 짧은 기도문을 어쩔 이렇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어떤 선율도 '아멘'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상의 소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모차르트(Mozart) / 증거자 축일 저녁기도
(Vesperae solennes de confessor),
K. 339/ 주님을 찬양하여라(Laudate
Dominum)



루치아 포프(Lucia Popp, 소프라노), 조지 피셔(Georg Fischer, 지휘) 필하모닉 관현악단 & 암브로시안 심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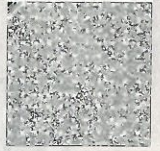
1967년 녹음

*루치아 포프(Lucia Popp, 1939~1993, 슬로바키아, 소프라노): 맑고 고운 소리로 많은 오페라의 주역 가수로 활동했다. 특히 모차르트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작품에서 뛰어났던 소프라노.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많은 순교자, 증거자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홀로 가까운 순교성지를 찾아 묵상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난 뒤 아름다운 생각과 생활을 꿈꾸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요?

문화를 통해 사목적 효과를 더욱더 높여야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주보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문화면의 역할을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culture)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cultus)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문화란 자연의 상태를 인간이 어떤 작용을 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문화사목이란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문화사목이란 문화를 선용하여 사목적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사목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극, 음악, 영화, 뮤지컬,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목의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이 시대의 강력한 언어이며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몇 년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상담 관련 강좌를 개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의 큰 기업에서 일을 하는 한 수강생과 나는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 저는 토요일에 쉬고 싶지만 기차를 타고 3시간 가까이 걸려 매주 명동에 강의를 들으러 옵니다. 물론 하루 종일 걸리는 일정이지만 듣고 싶은 강의라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문화에 대해 얼마나 큰 갈증을 갖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신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는 어떠한 지역 문화라고 할지라도 모두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남미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들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 것을 전 세계에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날 ‘아마존의 가난과 고립된 원주민 사회’를 주제로 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Synod) 분과 토론 개막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곳 바티칸에서 깃털 달린 전통 머리 장식을 착용한 경건한 사람인 원주민을 비꼬는 말을 들을 때 슬픔에 잠깁니다. 원주민이 쓴 것과 교황청 부처의 성직자 관료들이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나아가 문화는 지역이나 시간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의 문화가 어색하기는 해도 있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부모님의 독특한 문화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 다른 세대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젊은이가 7080 부모님 시대 노래의 노랫말을 좋아해서 노래를 통해 낯(?)인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주보의 문화면을 통해 모든 이가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통한 사목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강조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신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톨릭은 이미 보화 같은 콘텐츠를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으면서 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나요?”

2021년 / 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9월5일부터 인터넷 접수 : culture.catholic.or.kr

※대면 수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온라인+대면

때, 곳 : 9월30일~11월25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교구청 501호 / ※ 전 강좌 수강 시 수강료 8만원

01 정석 교수 - 도시공학

때 : 9/30, 10/7, 10/14 (3회)
수업방식 : 줌 | 수강료 : 3만원

02 최광희 신부 - 성경

때 : 10/21, 10/28, 11/4 (3회)
수업방식 : 유튜브+대면 | 수강료 : 3만원

03 임주빈 PD - 음악

때 : 11/11, 11/18, 11/25 (3회)
수업방식 : 대면 | 수강료 : 3만원

영상

01 '청년' 헬로우 기도

내용 : 다양한 주제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월피정
때 : 매월 첫 번째(화) 19시30분~21시
곳 :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수강료 : 무료

02 가슴콩닥 교회사 온라인

내용 :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을 통해 보는 김홍주 신부의 한국 교회사
때 : 10월6일~27일 매주(수) 19시30분~ 21시 (4회)
수업방식 : 줌 | 수강료 : 4만원

03 독서 모임 달달책방 온라인

내용 : 책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때 : 10월4일~30일 매주(월~토)
수업방식 : 네이버 밴드
수강료 : 5만원(도서비 포함)

문화

01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 - 기초반 온라인

내용 :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로 배우는 가톨릭 드로잉
때 : 10월5일~26일 매주(화) 20시~21시 (4회)
수업방식 : 유튜브 및 카카오톡 피드백 | 수강료 : 5만원

05 캘리그래피 성경 쓰기 온라인

내용 : 붓펜을 이용한 내 마음 속 성경 구절 손 글씨 쓰기
때 : 10월6일~27일 매주(수) 20시~21시 (4회)
수업방식 : 유튜브 및 카카오톡 피드백 | 수강료 : 5만원

02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 - 중급반

내용 :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로 배우는 가톨릭 드로잉
때 : 11월2일~23일 매주(화) 19시~21시 (4회)
곳 : 영성센터 A304호 | 수강료 : 6만원

06 프랑스 자수 - 성탄 카드 만들기

내용 : 프랑스 자수의 기초를 배우고, 성탄 카드를 만든다
때 : 11월2일, 9일(화) 19시30분~21시 (2회)
곳 : 영성센터 A302호 | 수강료 : 5만원(재료비 포함)

03 성경 속 이야기 한지 콜라주 원데이

내용 : 성경 속 장면을 한지 콜라주로 캔버스에 표현
때 : 10월23일(토) 14시~16시30분 /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수업
곳 : 영성센터 A304호 | 수강료 : 5만원(재료비 포함)

07 스테인드글라스 - 유리모자이크

내용 : 스테인드글라스 유리 조각으로 컵 촛대 만들기
때 : 11월 16일, 23일(화) 19시30분~21시 (2회)
곳 : 영성센터 A302호 | 수강료 : 5만원(재료비 포함)

04 트레이싱 기법 현대 성화 그림 원데이

내용 : 화가 헨리 다거의 화풍으로 예수님과 군중 표현하기
때 : 11월6일(토) 14시~16시30분 /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수업
곳 : 영성센터 A304호 | 수강료 : 5만원(재료비 포함)

08 디핑초 만들기 원데이

내용 : 밀랍을 녹여 전통 디핑 기법으로 만드는 수제 기도초
때 : 11월6일(토) 14시~16시30분
곳 : 영성센터 A302호 | 수강료 : 5만원(재료비 포함)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들을 더욱 공경하고 기억하는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8년 9월 8일 김성학 알렉시오 신부(68세)
- 1954년 9월 7일 이완성 요한 신부(40세)
- 1978년 9월 12일 조인원 빈첸시오 신부(71세)
- 2002년 9월 9일 최서식 라우렌시오 신부(65세)
- 2009년 9월 12일 남영희 이시도로 신부(74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바티칸뉴스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검색창에 「바티칸 뉴스」





바티칸뉴스 한국어 페이지

교황님의 기도와 강론, 바티칸 소식,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하는 「바티칸뉴스」



교구청일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갤러리1898 특별기획전: 전관
'영혼의 벗, 김대건 · 최양업을 만나다'
전시일정: 9월3일(금)~16일(목)

9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바오로의 회심과 선교 이야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를 통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때: 12월24일(금)~26일(일) /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품목: 수공예 성물, 공예품, 성탄 관련 물품 등
9월18일까지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접수
작품 이미지와 설명, 가격대, 작가 소개 포함

1286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9월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숙천 본당, 순천 본당
유튜브 통해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오후 7시(유튜브→'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서울시교우협의회 창립 25주년 기념 신앙대회(사목국 직장사목팀)

내용: 희년특강 및 장엄미사, 문화공연 및 이벤트
대상: 시청 및 자치구와 공사공단 가톨릭직원(퇴직자) 및 가족 / 문의(시청): 02)2094-2232 기관별 교우회 총무 및 중앙구청 교우회
때, 곳: 10월2일(토) 13시~17시, 중앙구청 대강당

제40회 가톨릭 에코포럼(온라인)

때: 9월15일(수) 19시~21시 줌(Zoom), 유튜브(Youtube) 생중계 / 주제: 기후위기와 농업
발제: 김정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튜브 생중계: '환경사목위원회' 검색 또는 (https://bit.ly/2EZafbf)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문의: 02)727-2283, 2272 환경사목위원회, 02)727-2277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어린이주보 '작은마음' 온라인 전시회

주제: 온누리에 주님 사랑 전하러 가요
내용: 서울대교구 초등부 어린이의 그림
마감: 10월22일(금) 오후 6시까지 / 02)763-7966
청소년국 초등부 홈페이지(www.chota.or.kr)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9월7일 · 10월5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제31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부문: ①신문, 출판 ②영화, TV ③라디오, 인터넷 ④교구, 수도회 / 대상: 2020년 11월1일~2021년 10월15일 사이 발표된 작품
접수: 10월15일까지 우편, 이메일(mscm@cbck.kr) 접수
문의: 02)460-762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 http://www.cbck.or.kr 참조

2022년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안내

때(1월~6월): 9월24일(금) 14시, 대성당 (오후 1시 대성당 입구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7월~12월): 2022년 1월~2월 중 추첨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http://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1년 영성심리이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 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온라인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직원모집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도림동) 세탁근무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세탁근무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이메일 문의 9월7일(화)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도림동) 시설관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시설관리 0명(계약직)
우대사항: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도시가스안전관리자, 기계·전기설비 운용 가능자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이메일 문의 9월7일(화)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QR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서울)	010-2140-7414
성심수녀회	9월18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3993-0316 남궁영미 수녀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9월1일~30일 / 문의: 010-8874-7970

젊은이 몸신학 피정
때: 9월10일(금)~12일(일) 2박3일 / 회비: 8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평창) / 대상: 39세 이하 청년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국악성가연구소 해외 성지순례
때: 2022년 5월9일~23일(14박15일) / 강수근 신부
곳: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메쥬고리에
문의: 010-2279-0255 국악성가연구소

호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문의: 010-9916-5798 토마스모어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때, 곳: 9월24일(금)~27일(일), 도미니코 수도원

성공률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사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신자
때, 곳: 9월12일(일) 14시~17시, 비대면
문의: 010-3817-0567(columban.or.kr)

길을 찾아서(젊은이 피정)
대상: 길을 찾는 35세 미만 미혼 여성
때, 곳: 9월24일(금)~26일(일),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여주피정의집 또는 Zoom 모임
회비: 2만원 / 문의: 010-9816-0072(pddm.or.kr)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지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성지순례 피정: 9월12일~15일, 9월25일~28일, 10월2일~5일, 10월15일~18일, 11월6일~9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호소 단식	9월30일(목)~10월3일(일)
성경완독	10월8일(금)~16일(토)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3차	9월17일(금)~25일(토)	문의: 061)373-3001,
제94차	10월15일(금)~23일(토)	010-3540-9001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젊은이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문의(접수): 010-9620-4820

온라인반	9월7일부터 매주(화) 20시 / 실시간 수업, 마리아론 공부, 핸드폰·카페 활용
대면반	9월26일부터 매월 넷째주(일) 10시~15시 (10개월), 가톨릭회관(명동) 311호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원서접수: 9월13일(월)~30일(목) / 문의: 061)432-9241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곳: 전남 강진군 강진읍 금릉2길 24

온라인 회복 성경여정 '성경 한 권으로 보자'
때: 10월5일부터 매주(화) 총40주, 낮강의 14시·밤강의 22시 중 선택 /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타회)
문의(접수): 010-8911-5957 천주교사도직연합회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2021년 영유아 교육 연택트 세미나
주제: 영유아기 교육의 주일학교 도입 필요성과 전망
때, 곳: 9월10일(금) 14시, 청담동성당 대성전
유튜브 생방송(검색·청담동성당)
주관: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문의: 02)3447-0750 청담동성당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 초급반
때: 9월23일~10월7일 매주(목) 13시~16시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5만원(음악심리상담사)
코로나19 사정으로 Zoom 화상수업 될 수 있음
문의: 02)575-7661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돈보스코미디어스쿨 2021년 후기 신입생 모집
과정: 중·고등과정(14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양천구 신월3동 살레시오투미레교육원

그리스도인 성장의 길-목요신학강좌(한국CLC)
때: 10월21일~11월25일 매주(목) 19시30분(6주)
곳: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회비: 대면 8만원·비대면 6만원 / 문의(접수): 02)333-9898

10월21일	회칙 '모든 형제들'로 세상 보기	박동호 신부
10월28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이재돈 신부
11월4일	현대 세계에서의 영적 자유	전주희 수사
11월11일	사회적 영성-개인적 영성을 넘어	정정일 박사
11월18일	사회적 모성 리더십	강영옥 박사
11월25일	세상속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식별	현재우 박사

예수회센터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의(9월 개강)
현장 강의를 녹화하여 일주일 후 동영상 링크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권오면 신부
영신수련 정기강좌-순례자와 나침반	정재천 신부
가톨릭 신앙과 영성	예수회사제의
꿈을 통한 영적 치유(신설)	홍기령 교수
성경대학-요한복음3	송봉모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유배 이후의 역사	주원준 박사
영적성장을 돕는 신학적 토대	이규성 신부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충북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학 가능 / 원서접수: 9월10일(금)~14일(화)
모집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의: 043)270-0100~0102

모집

제8회 가톨릭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분야: 행사 진행(영화제 기간), 자막번역·감수(사전)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인사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의 전화 상담
여성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코메스영성상담소
치유와 성장이 있는 동행. 심리상담, 영성상담, 전화상담(주1회) /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 '치매안심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피부과
성사생활 가능, 간병인 상시 모집 / 문의: 041)950-100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세종로(영복산) 요원 분양 공고 / 문의: 02)733-1471
서울에서 가까운 세종로요원(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193-1)에 평장으로 신규 조성한 묘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천주교 신자에게 1구좌 단위로 분양(2기 매장 가능·화장 필수·30년 이용 1회 연장 가능·여러 구좌 신청 가능)합니다 / 구리 포천 고속도로 이용시 5분 소요, 석계역에서 시내버스 1155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로성당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가족관계 성장과 소통훈련	9월11일~10월30일 매주(토) 10시~13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강박행동, 대인기피 등



신간

은총의 삶

이순아 지음
기쁜소식 | 208쪽 | 1만3천원
문의: 02)762-1194

신앙적인 글을 적어 이웃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하느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있다고 말하는 저자가 그간 써 온 글들을 한 데 엮어 펴냈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게, 조용히 기도로서 제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저자의 글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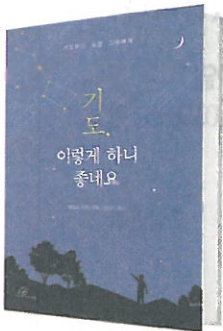


신간

요한묵시록 그 뜻을 헤아려 보다

안병철 지음
기쁜소식 | 572쪽 | 3만원
문의: 02)762-1194

안병철 신부가 사제수품 40주년을 기념하여 '요한묵시록'의 안내서를 펴냈다. 매 순간 불안감을 떨쳐 내지 못하고 현실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나 믿음 속에서 확고한 희망을 갖고 하느님 나라의 구현을 갈망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신간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제임스 마틴 지음
바오로딸 | 224쪽 | 1만원
문의: 02)944-0944

기도에 대해 마음에 담고 있던 궁금증과 갈등을 일상의 이야기로 유쾌하게 풀어주는 책이다. 힘으로 끌어당기지도 지식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전통 안에서, 다양한 지향과 상황 안에서, 전례와 축일과 관련된 정황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공감하며,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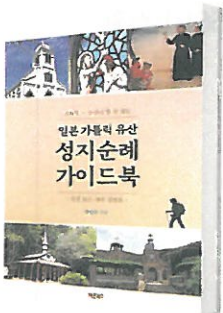


신간

선율로 느끼는 주님의 신비-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곡

서행자 지음
분도출판사 | 96쪽 | 1만원
문의: 02)2266-3605

2017년 출간된 '새 미사 경본'에 따른 미사 통상문과 한국 교회의 고유 축일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설과 한가위 명절을 위한 '미사 고유문'을 작곡했다.



신간

소확행 -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본 가톨릭 유산 성지순례 가이드북

박승우 지음
바른북스 | 260쪽 | 1만5천원
문의: 070-7857-9719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유 여행으로 일본 가톨릭 역사 유산과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코스 몇 군데를 직접 답사한 경험을 엮어 정리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박해로 순교하여 1867년 복자품에 오른 조선인 순교 복자가 열 다섯 분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간

기적은 인연을 낳고, 인연은 기적을 낳네

서창의 지음
하양인 | 313쪽 | 1만7천원
문의: 02)6013-5383

저자가 우여곡절 끝에 1959년 수도회에 입회한 후 건강 악화로 수도복을 벗기까지 10여 년의 수도자 생활, 1974년 상계동 빈민촌 전교 회장으로 봉사하며 15년 동안 주민들과 부대끼며 울고 웃었던 이야기, 1991년 대부도 선감공소에 들어가 공소 공동체를 가꿔 나간 그의 삶이 담겨 있다.

제2194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 토요일: 오후 6시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혼인면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10일(화)~11월 17일(수)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7752-4976)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9월 5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유아세례 : 9월 5일(주일) 오후 2시 30분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안내

9월 21일(화) 한가위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9월 22일(수)	미사 없습니다.(사무실휴무)

연도 : 오전 6시미사 (미사후에 연도 바칩니다.)

오전 9시/11시미사 (미사전에 연도 바칩니다.)

※ 한가위합동위령미사신청은 9월 19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으로 교무금 입금하신 분 중 아래에 해당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입금자	납부금액	입금날짜
2020년 교무금	360,000원	8월 18일
21년 1-7월 교무금	210,000원	8월 18일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8. 29)

총세대	책정세대	미책정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208	822	1,386	45.2%	42.0%	37.2	35.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리모델링 2차현금이 있습니다.

◎ 리모델링 기금 (8월 23일~29일)

누 계 912,019,861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윤주용 제네시오 상가 오십만원

◎ 감사헌금 (8월 23일~29일)

정순용 일십만원 송명자 일십만원
 이경미 일십만원 박옥연 일백만원
 이계동 일십만원 이효순 사십만원
 노덕연 일십만원 신귀순 일십만원
 이미경 일십만원 김진애 일십만원
 김민정데레사 일십만원 조정자 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2주일)

교무금 13,436,000원

주일 헌금 3,264,100원

리모델링 2차 헌금 1,661,100원